

だんじりまつり (단지리 마쯔리)

元禄 16 년 (1703 년) 키시와다 성주가 풍년을 기원하여 행한 稻荷祭 (이나리 마쯔리) 가 그 기원이다.

축제날에는 성내를 개방하여 마을사람들은 地車(단지리) 를 끌고 와서 성주 앞에서 여러가지 재주를 보여주는 것이 마을사람들의 즐거움이었으며 또한, 화목과 단결의 기회가 되었다. 이래 300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岸和田의 단지리축제는 9 월의 제례당일에는 이틀간 35 대의地車 (단지리) 가 성내거리를 웅장하고 장엄하게 질주한다.

地車(단지리)용어

ひき出し(히끼다시)

축제 첫날, 오전 6 시 싸이렌을 신호로 35 대의 단지리가 일제히 거리를 달리는 활기와 박진감이 넘치는 단지리축제의 오프닝

やりまわし(야리마와시)

단지리가 힘차게 교차점을 직각으로 돌기때문에 앞 지레와 키를 잠는 순간 지레가 일순간에 방향을 바꾸는 것

大工方(다이쿠가타)

단지리 지붕에서 리드미컬하게 춤추는 大工方(다이쿠가타) 는 축제의 주인공. 특히, 양쪽 손을 펼치고 한발로 서는 비행기타기등이 볼만하다.

彫りもの(호리모노)

고전 이야기의 유명한 장면을 테마로 단지리를 장식한 조각

宮入り(미야이리)

35 대의 단지리가 둘로 나뉘어서 각자의 신사(神社) 에 참배(参拝) 하는것 (제 2 일째오전중)

地車(단지리) 를 끄는 시간

제 1 일째

오전 6:00 ~ 7:30 (개막)

오전 9:30 ~ 11:30 (행진)

오후 1:00 ~ 5:00 (행진)

오후 7:00 ~ 10:00 (등불켜기)

제 2 일째

오전 9:00 ~ 오후 0:30 (신사참배)

오후 1:00 ~ 5:00 (행진)

오후 7:00 ~ 10:00 (등불켜기)

일본 축제중 최고를 자랑하는 岸和田地車祭(기시와다 단지리마쓰리) 는 연령별로 역할을 정해서 각자 조직과 운영을 맞고 있다. 이와같이 통제가 잡힌 축제는 전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수 없다.

전부 느티나무로 만든 단지리는 무게가 약 4 톤, 높이가 3.8m, 길이가 4m, 폭이 2.5m 이다. 또, 로프의 길이는 100~200m, 끄는 인원은 500~1000 명이다.

- ① 큰지붕
- ② 작은지붕
- ③ 앞지래
- ④ 뒷지래
- ⑤ 大工方 (다이쿠가타)

